

공동체 소식



전교 주일

하느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 수확할 밭에 일꾼들을 많이 보내시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느님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사로 힘을 얻어, 구원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소서.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 교회는 해마다 시월을 '묵주 기도 성월'로 지낸다. 묵주 기도를 자주 바치는 가운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신비들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을 더욱 깊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 매일미사 책 113쪽 참조.

10월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10/28(토) 오후5:30

구역장, 반장 반모임

- 일시: 10/22(주일), 주일미사후.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교 주일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450	212	174	63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 주	차민서 임마누엘	고평원 프란치스코
차 주	문예나 요안나	이원준 요한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 요셉	이우석 프란치스코 김인자 글라라
차 주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차 주	김말자, 김화년, 안현숙

헌금 봉사자

금 주	이내익 베드로, 이우영 가브리엘
차 주	김영진 라파엘, 강승석 도미니코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10/15	50명	356달러	920달러
김정원, 김대연, 박태주, 김화년 (총 4세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10월 22일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수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교육관)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전교 주일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온 땅으로 누리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며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선교 사명을 깨닫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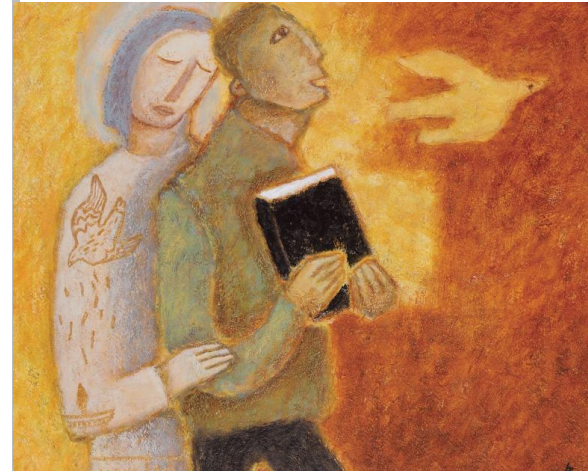


그림 묵상

‘동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세상의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힘과 언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도 큰 기쁨과 평화를 간직하며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교주일을 맞아, 이웃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신앙의 기쁨으로 초대하는 선교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1-5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밀려들리라.>



-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0,9-18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16-2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기쁜 소식은 세상에 전하자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는 세월이 흐른 뒤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시온 산이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모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게 될 것인데, 그때 모든 민족이 그리로 밀려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주님의 길을 배우고 그분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모든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이상 불의와 전쟁, 죄악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주님의 빛에 따라 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이사 2,1-5)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모든 민족은 온 산들 위에 굳게 서 있는 새 도성 예루살렘이자 성전인 예수님께로 모여올 것입니다. 그분께 주님의 길을 배워 주님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기쁜 소식, 그분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파견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당신께서 가르쳐주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 곧 아버지의 뜻인 주님의 길을 가르치고 모두가 그 길을 걷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마태 28,18-19)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도록 초대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이어받아 이사야가 예언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이들입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임무에 따라 복음을 충실히 전할 때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드러날 것입니다.(마태 5,13-16) 왜냐하면 전교 자체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듯이 선포하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이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길로 따라나선 이들입니다. 예수님에 관해 전해 들은 우리는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하던 신앙, 곧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입으로 고백하며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고, 또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믿는 바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합니다.

그런데 바오로가 입으로 고백한다고 표현을 하다 보니 당신을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마태 8,21) 예수님께서 분명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들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 전교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입으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말고 세상 곳곳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도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말하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로마 10,15-16)

오늘은 세상 모든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전교 주일입니다. 이런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다짐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겠다고 다짐합시다. 물론 전교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곳곳에서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시다. 그렇게 우리들이 믿는 바를 선포할 때 세상 모든 이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들어 그분의 길을 따라 걸을 것입니다.



오순절에 내리신 성령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사도 2,1-2)

사도행전은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날이 마침 오순절이었다고 전합니다. 오순절(五旬節)은 파스카 축제가 지나고 오십 일째 되는 날로서, 원래 밀 수확을 끝내고 하느님께 만물을 바치는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탈출 23,16) 그러던 것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하느님과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 곧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것을 경축하는 데까지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하느님께 추수감사제를 지내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까닭은 이제 결실의 때가 되었으니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추수하라’는, 다시 말해 모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수난과 부활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신 제자들에게 협조자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마르 16,15)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내리신 성령은 제자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용감한 증인으로 변화시켰고 이를 통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사도행전 2장)

우리도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모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분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위로자이자 협조자요 보호자이십니다. 지상의 나그네요 순례자인 교회는 세상 종말까지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만방에 선포하며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구현할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끄시는 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까지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오순절에 내린 성령이십니다. 오순절에 내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선교 활동으로 인해 새로운 백성이 태어났습니다.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복음을 전하는 단계

- 1단계 - 말씀을 전한다.
- 2단계 - 말씀을 이해하게 해준다.
- 3~99단계 -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다.
- 100단계 - 그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마태 28,20)

